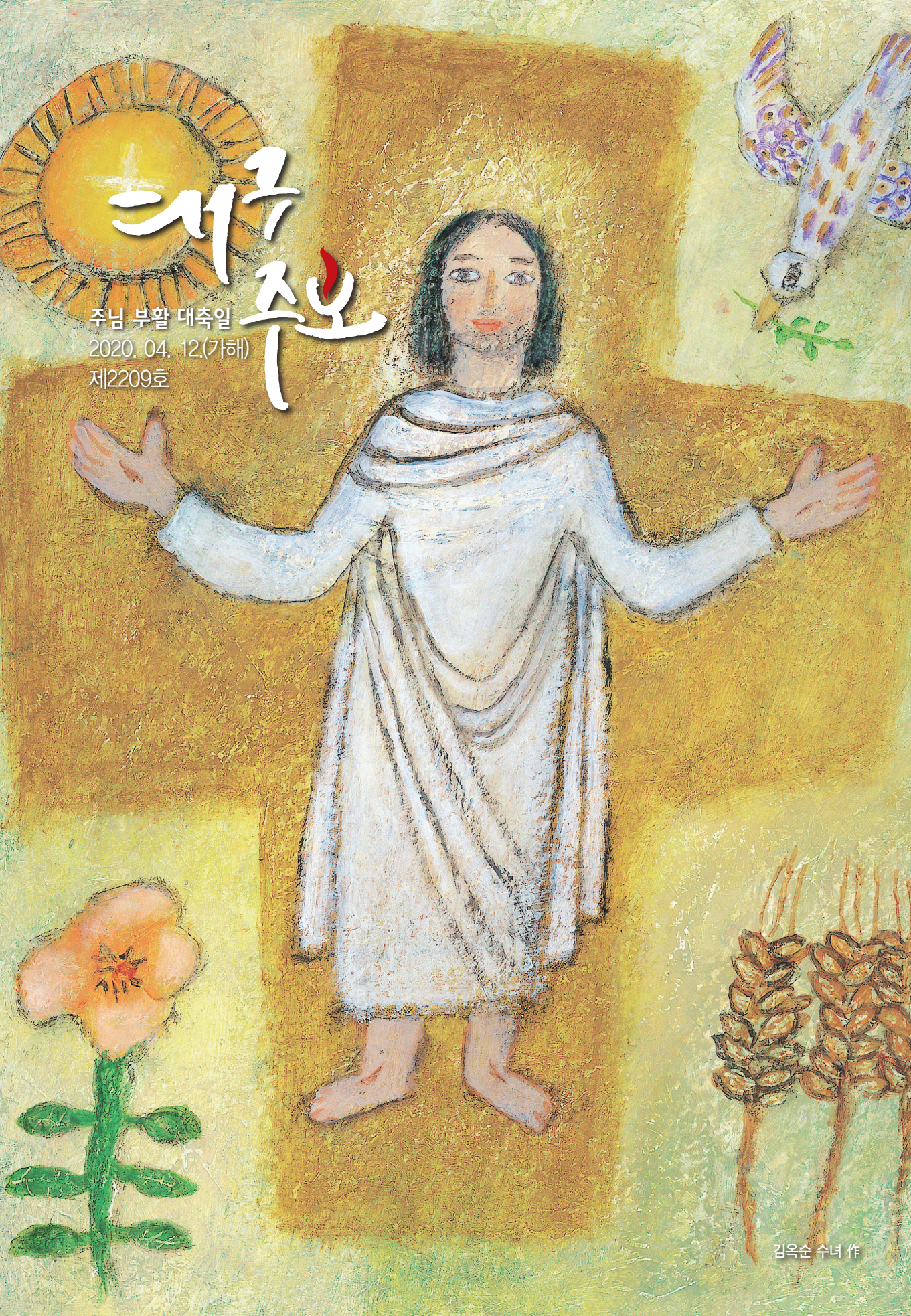




새구주노

주님 부활 대축일
2020. 04. 12.(가해)
제2209호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마태 28,5-6)

교구민 여러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축하’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마저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부활을 이야기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사순 시기를 보냈습니다. 머리에 재를 받지도 못한 채 사순 시기를 시작했고, 성당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영성체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속죄와 참회의 성가를 소리 높여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날마다 긴장된 마음으로 뉴스를 접하며, 항상 마스크를 끼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계하며 보낸 사순 시기였습니다.

2.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았으나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의 재개를 좀 더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구장으로서 크나큰 아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한 때입니다.

지난 3월 27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인류를 위한 특별기도와 축복’ 예식을 거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텅 빈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을 홀로 걸어가는 교황님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온 인류의 아픔과 세계 교회를 걱정하시는 그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실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황님과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이렇게 세상은 죽음의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같은 범죄 행위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몰리고 있으며, 난민들은 열악한 수용 시설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극빈층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심각한 영양 결핍에 시달리며,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같은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술한 범죄들도 사회의 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 계층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연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죽음의 세력이 승리한 듯 보이는 곳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군중에게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의 세력이 승리한 듯 보이는 절망의 끝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더 이상 희망도 없었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에게서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마태 28,5-6)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평안하냐?” 결코 평안할 수 없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평안을 물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밤새 두려움에 떨던 마리아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는 누구나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되리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력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5. 우리 교구는 올해를 ‘치유의 해’로 보내고 있습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간절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 또한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다친 모든 이들에게 **육체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신적인 치유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오랜 격리 생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황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 친교를 나누지 못하면서 사회 전체가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치유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적인 치유도 필요합니다. 가장 복된 시기인 사순 시기와 파스카 성삼일, 부활 시기를 교우들은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성당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찬례에도 참여하지 못하며, 교우들과 모여 기도와 친교의 모임을 갖지 못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성사생활도 하지 못해 죄 사함의 은총도, 혼인의 축복도, 병자성사와 장례미사의 위로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전체의 영적인 치유도 절실합니다.

‘**치유의 해**’를 보내며 특별히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의 주보이신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느님께 열심히 전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6. 모든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왔듯이, 고통과 보속의 사순 시기가 지나고 부활의 기쁨이 찾아왔듯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찬란하고 행복한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건어내고 기쁘게 부활을 맞으며 희망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부활을 체험하는 삶이기를 기원합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이우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2020년 4월 12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조 환길 타대오

파스카(Pascha)

우리는 “부활절” 또는 “부활 시기”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지만, 교회의 공식 전례서는 “파스카” 또는 “파스카 시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특히,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 제2 저녁 기도까지의 3일간은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부릅니다.

파스카라는 말은 원래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פסח** (Pesach: 페샤흐)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일컬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만아들과 짐승의 만배를 치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거르고 지나갔는데 이를 두고 ‘지나간다’는 의미로 한자로는 과월(過越)절이나 유월(踰越)절로, 영어로는 Passover라고 번역합니다.

어린양의 피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게 된 구약의 파스카 사건은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시는 동안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수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파스카의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느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함으로써 죄의 종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파스카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축하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행적과 신비 전체를 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순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성목요일 오후에 이루어지는 “주님 만찬 미사”가 그 시작이며, 파스카 축일의 주일부터 50일 후가 되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파스카 시기가 끝납니다.

파스가 성삼일은 “삼 일에 걸쳐 지내는 파스카 축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사건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지냅니다. 원래는 성금요일(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성토요일(무덤에 묻히심), 주일(부활)을 가리켰으나, 4세기에 최후 만찬을 함께 지내게 됨으로써 성목요일의 만찬 미사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파스카 성삼일을 통해 ‘하느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지만, 사실은 모든 미사에서 파스카 신비가 이뤄집니다. 바로 성체성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완성된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



파스카 성아

- ▲ 제1독서 [창세 1,1-2,2]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 ▲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 제2독서 [창세 22,1-18]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 ▲ 화답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 제3독서 [탈출 14,15-15,17]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 들어갔다.〉
- ▲ 화답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 제4독서 [이사 54,5-14]
〈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없이 여기신다.〉
- ▲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 제5독서 [이사 55,1-11]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 ▲ 화답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제6독서 [바룩 3,9-15,32-4,4]
〈주님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 ▲ 화답송
◎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제7독서 [에제 36,16-17,18-28]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 ▲ 화답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 서간 [로마 6,3-11]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 ▲ 복음 [마태 28,1-10]
〈예수님께서는 되살아나셨고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것입니다.〉
- ▲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

- ▲ 입당송
저는 다시 살아나,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 제1독서 [사도 10,34-11,37-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 ▲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제2독서 [콜로 3,1-4]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 ▲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께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복음 [요한 20,1-9]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파스카 성야 및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생중계 안내

파스카 성야 미사 | 4월 11일(토) 20:00 |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주교 집전

주님 부활 대축일 | 4월 12일(일) 10:00 | 교구 총대리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 집전

 **YouTube** 에서 **천주교대구대교구** 를 검색하세요!

대구가톨릭평화방송에서는 4월 12일(일) 오후 6시 5분에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를 녹음방송합니다.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중지된 지금, 미사를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cpbc가톨릭평화방송 매일미사 방송시간

TV 월~토 06:00, 12:00, 18:00, 21:20 | 주일 06:00, 09:00, 12:00, 18:00, 21:00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매일 05:00, 18:05(대구 FM 93.1MHz, 포항 FM 96.9MHz, 김천 FM 100.5MHz, 안동 FM 100.7MHz)

매일 05:00 이후 cpbc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성금 후원계좌 : 대구은행 041-10-003277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코로나19 피해 성금 접수현황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규 엘리지오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 (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616) 척탑병원 3층
청라연덕(산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 내 장수 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가람소방방재(주)

-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아연비노비즈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기백한의원

허리, 어깨, 손발저림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표란치스꼬)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전증 학회장
대구 경복치매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일 선 우(마리아)

♥ 교통증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장 무료 | 영업시간 11:00~19:00
☎ 053)428-7989 | 010-4439-9991
♥ 예쁜 선물 증정 ♥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행사 | 모임

4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4.26(일)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대상: 고3~대학·일반(입시반)
※ 중1~고2 예비신학생 모임은
4월에 없습니다.

교육 | 모집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

성경공부를 함께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등
문의: 교구 청년국, 255-1582
http://dcy.co.kr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 ME 주말

381차 ME주말: 6.12(금) 19:00~1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앞산밀북카페 개강 무기한 연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
기에 맞춰 이번 학기 북카페 강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의: 622-1900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발성법, 오카리나, 제대꽃꽂이, 수
지침, 섬유공예, 피아노, 사범자격
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창작사진,
원어민왕초보영어, 정리수납전문가과정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장소: 계산문화관 5층
서류: 교적증명서
문의: (010)3516-1911 / (010)3529-3898

대구가톨릭치매센타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밀알회 후원자 모집

교구 내 사랑이 필요한 곳에
밀알회가 함께합니다.
형제적 사랑 나눔에 함께해 주세요.
문의: 422-3411(내선 1번)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528~9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5.8~10 / 5.26~28 / 6.5~7
장소: 제주성지 7곳
지도: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성지해설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회
문의: (064)805-9890

채용 | 안내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법률 상담, 심리 검사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갈밭성당 건립과 50년의 기도

정성껏 만든 영상입니다.
검색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어: 갈밭성당
문의: (010)6835-9594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성지여행
T. (053)253-3399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논곡)성요셉요양병원장례식장 053-617-3644
☎ 053-650-4444 / 053-657-4444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체로 수익금은 전액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 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암 · 재발 · 소화기 · 통증 · 건강검진
Happy! 정신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 (053)670-6000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